

숨 막히는 열기에 고추농가 속 타들어간다

비닐하우스 내부 거대한 찜통...오후 2시면 50도 훌쩍 새벽 작업에도 땀 범벅...수확 감소·자재값 상승 고충

“밤이 되어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버티기 힘든데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고추는 오죽하겠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전남광주지역 고추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한낮이면 50도를 웃돌아 농민들은 새벽에만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추 생육 부진으로 수확량은 줄고 농자재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3일 오전 9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승촌동의 한 고추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내부는 거대한 찜통을 방불케 했다. 갇힌 열기와 높은 습도가 뒤섞인 공간에서 몇 분만 서 있어도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41번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관씨(65)는 연신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 하우스 안에 들어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

아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신발 속까지 땀이 흘러내렸다.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문을 열어둘 수도 없다. 강한 직사광선이 그대로 들어오면 어린 고추가 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고추를 살리기 위해 물을 계속 공급하면 증발한 수분 때문에 내부 습도는 더욱 높아지고, 작업 환경은 한층 열악해진다.

이씨는 “오후 2시 정도 되면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는다”며 “그때는 사람도 버티기 어렵고 고추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 고추 농가들은 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선풍기를 하루 종일 가동하고 있다. 전기료 부담이 적지 않지만 바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고추가 시들거나 고사하기 때문이다.

군 제대 후 농사를 시작한 이씨는 현재 8264㎡(2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6동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박을 키웠지만 연작 피해가 반복되면서



41번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관씨(65)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승촌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상태, 잡초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고추를 주작목으로 바꿨다.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농사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후까지 작업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새벽 5~6시에 밭으로 나와 물을 주고 영양제와 비료를 살포한 뒤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의 작업을 마친다. 이후에는 폭염 때문에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생수를 여러 차례 마시고 갑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며 더위를 견디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이씨는 “예전에는 물을 3일에 한 번만 줬도 활착이 잘됐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한다”며 “관수도 하루 20

분씩 매일 하면서 땅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하우스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요즘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차를 타고 다닌다”며 “계속 물을 마셔도 땀이 너무 많이 나 급세 탈진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폭염은 생산량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1322㎡(400평) 규모 하우스 기준 예년에는 10kg 안팎 생산하던 고추가 올해는 7~8kg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생산량은 8~9kg에 그쳤다.

생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

양제와 비료, 비닐, 덱매줄 등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3305㎡(1000평)에 사용하는 영양제 비용만 한 번에 10만원이 든다. 고추를 묶는 덱매줄 가격은 지난해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올랐고, 비닐하우스 비닐 가격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1983㎡(600평) 규모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교체하려면 인건비 약 700만원, 자재비 약 200만원 등 모두 9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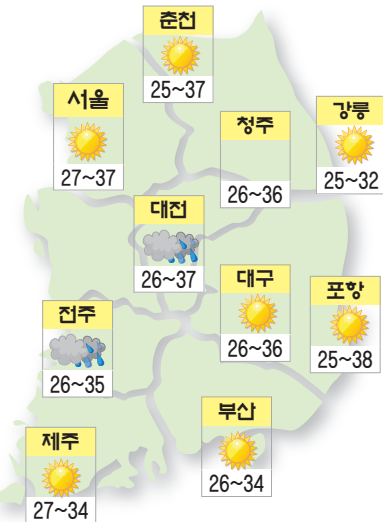
이씨는 “예전에는 농자재 비용이 수입의 4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는 3분의 1까지 늘었다”며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농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투자도 고민거리다. 이씨는 “차광시설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수천만원이 들어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며 “행정기관의 차광막과 냉방시설 지원사업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여름이 더 길고 뜨거워지면서 농사짓기가 갈수록 두렵다”며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예보	05:44	달출	22:21
해질	19:33	달입	11:03



광주		26~36
목포		26~33
여수		26~33
순천		25~35
구례		24~36
광주		26~33
개남		26~33
임도		26~34
흑산도		26~32
고흥		26~34
진도		25~33

목포	미물(고)	05:39 / 18:05
	샘물(저)	10:52 / 23:08
여수	미물(고)	00:06 / 12:33
	샘물(저)	06:14 / 18:24

동구 선교저수지, 자연친화 호수공원 조성

90억 사업비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선교저수지 일대 환경 생태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주변지원사업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동구 선교동 199-3번지 일원 선교저수지로, 총면적은 4만81㎡ 규모다.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90%, 시비 5%, 구비 5%가 투입된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에 22억2400만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국비 20억원과 시비·구비 각각 1억1100만원 등 총 22억22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공원에는 저수지 경관숲과 계절별 꽃단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48면 규모의 주차장과 인근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56면)을 연계해 주차 편의를 높이고, 기존 논을 보전한 거울 연못과 생태교육 체험시설도 마련해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원이 가능한 야외 스테이지와 휴식·전망시설을 설치하고, 호수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완만한 수변 산책로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해 12월까지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을 마쳤다. 이달부터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뒤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선교저수지 공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생태와 문화,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탄 민주노동 광주지본부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펄펄 끓는 전남광주, 연일 온열질환 ‘비상’

광양·광주 40도 넘어...폭염 중대경보 확대 발효

전남과 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까지 발생해 폭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인근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태양광 시설 주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체온은 41.8도에 달했다.

앞서 오전 11시 25분께에는 고흥군 풍양면 월동길에서 90대 남성 B씨가 ‘속이

메스껍고 일어나지 못하겠다’며 119에 신고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폭염특보도 한층 강화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곡성 남부와 광주 동부, 순천, 진도와 구례, 무안 남부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다.

광양읍의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기록했다. 광주(조선대)도 40.1도까지 올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윤기 사건’ 경찰수사팀, 핵심증거 인멸 도왔다

검찰 공소장에 부실수사 전도 드러나...각종 정보 유출 리얼돌·케이블타이 방치...증거영상 삭제 정황도 적시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경찰이 피의자 가족에게 수사 기록을 전달하고 핵심 증거의 은닉·폐기를 가능하게 했으며, 증거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담겼다.

3일 광주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과 강력팀 소속 B경사(41) 등은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과 주요 증거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핵심 증거가 은닉·인멸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압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해 수사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 5월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A경감과 B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를 전달했고,

장 경감은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주거지와 순천 가족 주택 등으로 옮겨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위치와 열쇠를 알려줘 증거 은닉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훼손 흔적이 있는 리얼돌 2개를 발견했지만 압수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후 A경감은 장윤기 부친의 요청을 받고 B경사에게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도록 지시했고, 며칠 뒤에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 경감이 해당 리얼돌을 훼손해 여러 장소

에 버렸으며, 경찰관들은 이를 가능하게 해 증거인멸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도 반복됐다. B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시기와 피의자의 자백 여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 추가 압수수색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 역시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한 정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증거 영상 삭제 과정도 문

검 삼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경감은 차량 압수

도 당시 차량 안에 놓아두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증거를 경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D순경(26)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순경은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관련 판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